

김해를 가꾸는 문화인물 두번째 이야기

# 어느 날 너를 상상하며

글 김수미 | 그림 장두루





김해를 가꾸는 문화인물 두 번째 이야기

# 어느 날 너를 상상하며

글 김수미 | 그림 장두루







## 프롤로그.

“만약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한 장면을 고른다면?”

마라톤을 처음 완주했을 때,  
짝사랑하던 사람과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 붙었을 때.

슬프고, 즐겁고, 근사하고, 때로 후회도 되는  
인생의 많은 장면 중에서 딱 하나를 고르는 일은 고민스러운 일이다.

2021년 김해문화인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어떤 사람은 기다린 듯이 바로 대답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답변의 공통점을 찾았다면, 모두 자신이 하는 일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장면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이라이트로만 구성된 예고편이 아니니까.

크래딧이 올라가기 전까지 결말을 알 수 없는 영화처럼,  
삶은 계속 이어지는 장면의 연속이므로.

고심해서 고른 장면의 앞뒤에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안다.

술한 눈물과 땀을 바탕으로 탄생한 ‘인생의 한 장면’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이야기에 응원을 보낸다.



---

## 강 길 수

### # 신입생의 마음

3월, 캠퍼스는 봄이었다. 꽃샘추위에 길수 씨는 점퍼 지퍼를 끝까지 잠갔다.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새싹은 움트고, 꽃망울은 맺혔다. 길수 씨는 기특한 것을 본 것 마냥 하나씩 눈에 담으며 걸었다. 젊었을 적에는 왜 봄꽃이 이쁜 줄 모르고 살았을까.

“잘 다녀와요! 파이팅!”

문득 아침에 현관문을 나서는 자신을 향해 손 번쩍 흔들던 아내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쳤다. 서른 일곱의 나이에 신입생이 될 줄은 몰랐다. 길수 씨는 아내 생각을 하면 고맙기도 했지만, 미안함도 컸다. 늦게 대학에 입학하겠다는 결심은 스스로도 쉽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생계의 부담이 커진 아내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괜

스레 코끝이 시큰해진 길수 씨는 가방 끈을 단단하게 잡아 당겼다. 그리고 만화과 강의실이 어딘는지 고개를 쪽 빼고 두리번 거렸다.

강의실은 파릇파릇한 새내기들로 붐볐다. 스윽 둘러봐도 자신만큼 나이가 든 학생은 없어보였다. 길수 씨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그리고 책상을 스윽 손으로 쓰다듬었다. 강의실에 자신의 자리가 있다는 게 새삼스러웠기 때문이다.

길수 씨는 오랫동안 옷 장사를 했다. 그리고 손님이 드문 시간에는 툼툼이 종이에 스케치를 했다. 만화가가 되고 싶었다. 물론 작업은 그림을 그릴 공간과 시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었지만, 갈수록 배움에 목말랐다. 세상이 바뀌면서 만화도 수작업보다 포토샵으로 그리는 작업이 많아졌고, 배우고 싶은 새로운 기술도 늘어났다.

지나간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길수 씨는 가방을 열어 새 스케치북과 펜을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강의실을 스케치했다. 강의 시간까지는 아직 10분이 남아 있었다. 길수 씨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눈앞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토록 자신이 원했던 풍경이었다.



---

강길수

만화가.

한산신문과 김해뉴스에 시사 만평을 연재하며  
〈해동이가 전하는 김해인물 이야기〉속 삽화를 그렸다.

---

## 금 동 건

### # 삶으로 쓴 시

동건 씨는 훌쩍 작업 차량에 올라탔다. 아무 온기 없는 차의 첫 손님은 언제나 동건 씨였다. 차에 올라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운전석 옆에 끼워둔 습작 노트를 펼쳐서 하룻밤동안 모은 시구를 메모하는 것이었다. 매일 같은 과정을 반복하지만 한 번도 지겹다고 생각해본 적 없는 일.

### 속 스욱 스-

빈 종이에 머릿속에 떠오른 영감을 옮겼다. 일터로 걸어오면서 본 낯은 미용실 간판, 이른 아침 비질을 하는 아파트 환경 미화원의 모습, 골목길에서 마주친 얼룩 고양이 등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때로는 생각한 것이 그대로 종이에 채워졌으나, 마음과

는 영 다르게 쓰이는 글들도 있었다. 그럴 때는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몇 번 몇 십번을 반복했다. 그렇지만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계속 차 안에서 시간을 끌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동건 씨는 공책을 덮고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다.

동건 씨가 운전하는 작업 차량이 나타나면 거리의 사람들은 떨찌감치 물러섰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였다. 차가 멈추자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다. “으... 쓰레기 냄새” 하고 티 나게 코를 부여잡으며 멀어지는 사람도 있었다. 쩡한 야광색깔 조끼를 입은 동건 씨는 뚜벅뚜벅 걸어가 정류장 앞에 놓인 쓰레기통을 단단히 잡으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흰 마스크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동건 씨는 활짝 웃었다. 그 미소가 전해지길래도 한 듯, 멀리서 한 아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금 동 건

25년 차 환경미화원.

시집 <자갈치의 아침>, <꽃비 내리던 날>,  
<시를 품은 내 가슴>, <엄마의 젖무덤>, <비움>을 냈다.





---

## 김 우 락

### # 보물찾기

우락 씨는 귀를 쫑긋 세웠다. 영화나 책.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해 구석구석 마을 이야기를 채록하겠다고 뛰어다닌 지 여러 해였다. 일제 강점기를 몸소 살아낸 사람들, 쌀 한 톨이 귀했던 보릿고개를 넘은 사람들의 이야기... 우락 씨는 몰랐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꼭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다.

‘어르신들의 이야기야말로 살아있는 유산인데. 어떻게 하면 잘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을까.’

우락 씨는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만났다. 최수성 어르신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내가 나이가 올해 아흔이야. 30대 후반에 큰 병이 와서 의사를 찾았더니 나더러 일곱 가지를 하지 말래. 낮잠도 자지 말라, 술도 먹지 말라. 시킨 대로 했더니만 장수를 했어. 하루는 고맙다고 그 의사를 찾아갔단 말이지. 의사가 하는 말이 가관이야. 자기는 그 일곱 가지 금기사항을 못 지켜서 그만 병에 걸려서 하늘 나라 갈 날만 남았다는 거야.”

최 어르신은 꼰꼰꼰하고 웃었다. 최 어르신은 가진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었다. 설새 없이 이야기가 쏟아졌다. 우락 씨는 양해를 구하고 가져간 녹음기를 켰다. 그리고 혹시 애써 녹음한 파일을 날릴지도 모르니 휴대폰 녹음기도 켜뒀다. 최 어르신은 뭐든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했다. 오죽하면 70년 전 중학교 졸업장과 색이 바랜 병원 진료 기록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꼼꼼하게 고무줄로 묶어서 보관된 방대한 각종 자료를 보면서 우락 씨는 입을 떠억 벌렸다. 김해 이야기를 채록하는 우락 씨에게 최 어르신은 살아있는 박물관과 다름 없었다.

“내 인생 이야기 다 하려면 오늘 밤 꼬박 새우지. 속도 출출한데 국밥이나 한 그릇하고 마저 이야기할까?”

최 어르신은 국물 맛이 괜찮다는 김해시청 근처 돼지국밥 가게를 이야기했다. 우락 씨는 단번에 좋지요, 하고 장단을 맞추듯 대답하고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신이 몰랐던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 동네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생각에 벌써 가슴이 두근거렸다.



김 우 락

김해문화원 부원장, 인제대학교 융복합센터 연구위원.

김해 역사 자료 수집과 마을 기록 아카이빙을 한다.

---

## 김 경 희

### # 깎촌에서 만난 봄

마음이 산란했다. 그럴 때면 경희 씨는 쪽 뺨은 해반천을 하염없이 걸었다. 개굴, 개굴. 어디선가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렸다. 겨우내 움츠려 있던 생명이 움트는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아...’ 하고 경탄이 흘러나왔다. 경희 씨는 ‘이 역동적인 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오는 걸까.’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복잡한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때는 들리지 않았던 다양한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따스한 봄 햇살을 받은 물이 흘러가는 소리, 짹짹 지저귀는 새의 소리...

경희 씨는 고개를 들어 해반천을 천천히 둘러봤다. 운동복을 입고 천천히 달리는 사람, 유아차를 끌고 나온 아빠, 보온병에 담은 차를 나눠 마시는 중년의 여성들. 경희 씨는 눈 앞에 펼쳐진 해반천의 풍경을 푹푹 연필로 눌러 쓰듯 마음에 담았다. 해

반전은 경희씨에게 삶의 터전이자 영원한 영감의 보고였다. 한참을 멈춰서서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김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해문인협회입니다. 김경희 작가님 맞으시죠?”

네, 하고 침착하게 대답한 경희 씨는 꿀꺽 침을 삼켰다. 설마, 설마.

“작가님, <간촌에서 만난 봄>이 2021년 김해 문협 우수작품집상에 뽑혔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잠시 세상이 멈춘 듯했다. 경희 씨는 네, 네. 하고 대답을 하면서도 차오르는 기쁨을 어쩔 줄 몰랐다. 향후 수상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희 씨는 하늘 향해 힘껏 점프라도 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어린아이들처럼 발이라도 신나게 동동 구르고 싶었다. 그동안 글을 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간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전화를 끊고 경희 씨는 두 손을 입가에 가져갔다. 이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하면 좋을까. 간질간질한 기쁨이 전기처럼 몸에 찌르르 흘렀다.



김 경 희

수필가.

2015년 '선수필' 신인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김해수필문학회 회장과 수로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

## 김 은 속

# 평상 무대의 주인공

“아서라, 내가 한 소절 뽑아볼게!”

제일 말 없던 해길 어르신이 별떡 일어나서 <고향역>을 부르기 시작했다. 흥이 오를 대로 오른 해길 어르신을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은속 씨도 큰 박수로 환영했다.

*달려라 고향열차- 설레는 가슴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역*

구성진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과묵한 해길 어른신이 사실은 동네 제일 명창이라는 사실은 칠촌 마을 주민들이라면 모두 아는 사실이었다. 은숙 씨는 눈을 감고 열창하는 해길 어른신을 보면서 비로소 마을 주민들과 하나가 된 기분이 들었다.

여름 해는 길었다. 누엣누엣 해가 질 때까지 마을 평상에 앉은 사람들은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자, 김 선생님도 한 잔 들어요”

어느새 맞은 편에 앉아있던 정순 어른신이 막걸리 한 사발을 들고 은숙 씨 옆으로 왔다. 정순 어른신의 뺨이 빨그레하게 물들어 있었다. 얼큰한 취기가 느껴졌다.

“참말로 고맙소”

정순 씨는 속속 눈가를 문질렀다. 목소리 끝에 물기가 묻어 있었다. 작년에 혼자 가 되고 말수가 줄어들었다는 정순 어른신은 은숙 씨가 칠촌마을에 와서 가장 말을 많이 붙인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젊을 때는 쉰배지게 자식들 키운다고, 농사 짓는다고 쉬어본 적도 없는데. 선생님 덕분에 요즘 팔자가 핀 것 같아. 돈이 있어도 뭘 누려야 할지 잘 몰랐는데...”

은숙 씨는 대답 대신 가만히 정순 어르신 손을 감쌌다. 처음 칠촌 마을 어르신들 앞에서 마을에서 공연을 열겠다고, 강연을 준비하겠다고 말하던 때를 떠올렸다. 문화기획이니, 예술이니 하는 말이 공허하게 다가가지 않도록 애썼던 지난 날이 생각났다. 우려와는 다르게 마을 어르신들은 천천히 마음의 빗장을 풀고 다가왔다.

어느새 떼창으로 변진 <고향역>이 끝나자 은숙 씨는 일어나 말했다. 다음 타자는 우리 정순언넌니더! ‘와아아’하고 평상 위로 함성이 쏟아졌다. 아이고 무슨 노래여, 정순 어르신이 손을 마구 저으면서도 고개를 돌려 큼큼, 하고 목소리를 골랐다.



김은숙

김해문화네트워크 이사, 김해 오카리나 연구회 대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재밌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

---

## 박 시 영

### # 잊을 수 없는 공연

시영 씨는 책상을 정리하다 여러 장의 사진 뭉치를 발견하고 우뚝 멈췄다. 그리고 의자에 기대 천천히 사진을 넘겨보았다.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입꼬리가 올라갔다. 천 사백 여개 관객석이 꽉 찬 <김해 문화의 전당> 공연 사진이었다. 시영 씨는 당시 만석이 된 공연장을 찍어두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맨얼굴의 관객석.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코로나 시대에선 보기 드문 광경이었기 때문이다. 시영 씨는 힘껏 손뼉 치고 큰 소리로 열광하던 관객의 모습이 그리웠다.

다음 사진은 의수를 낀 기훈 씨가 장구를 치는 모습이었다. 기훈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더라, 함께 난타 사물놀이를 하자는 제안에 기훈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자신의 딱딱한 의수를 앞으로 내밀며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그해 시영 씨가 기훈 씨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은 “우리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봐요”라는 말이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호흡을 맞추고 한 곡을 완주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척수 장애인이 들이 모여서 만든 공연이 쉬울 리 없었다. 연습 진행과 지휘를 맡은 시영 씨는 시간에 관대했다. 더 기다릴 수 있다고, 천천히 함께 가면 된다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시영 씨의 오랜 설득에 기훈 씨는 결국 장구채를 잡았다. 단단한 의수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고 장구 연습에 들어갔다. 하지만 힘 조절이 쉽지 않았다. 너무 세게 팔을 휘두르는 바람에 의수를 두 번이나 부숴다. 그럴 때마다 기훈 씨는 머쓱하게 웃었지만, 다음 연습 시간에 빠지지 않고 얼굴을 비쳤다.

꾸준함의 힘이 무서웠다. 불협화음처럼 들렸던 곡이 점점 조화롭게 들리기 시작했다. 과연 무대에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는 아주 천천히 희망으로 번졌다. 조금 더 기다리면 된다고 버릇처럼 말했던 시영 씨의 독려가 사람들에게 와닿은 걸까. 열두 명의 척수 장애인들이 올린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관객들이 자리를 꽉 채운 만큼, 박수 소리도 요란했다. 사진을 넘기며 그때를 회상하는 시영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나갔다.



---

박시영

우리소리예술단 대표.

다문화가정, 발달장애인 국악예술 교육을 하고 있다.



---

## 박 태 남

### # 논어 읽는 오전

태남 씨는 책방 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켰다. 시원한 바람이 훑 들어왔다. 오전 9시 30분. 이제 30분 후면 사람들이 들어찰 예정이었다. 2년 6개월 동안 이어온 논어 강독 시간이었다. 태남 씨는 손님들이 앉을 의자를 정리하고 테이블 위를 마른 거즈로 닦아냈다. 그리고 여분의 의자를 꺼내 테이블 사이사이에 놓았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오기로 한 날.

“안녕하세요”

엷된 목소리와 함께 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합포고등

학교 〈책 읽는 동아리〉 학생들이었다. 태남 씨가 책방을 운영하면서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어른이었다. 청소년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기에 반가움은 더 컸다.

“어서 오세요!”

준비한 자리가 모두 차자, 태남 씨는 사람들 앞에 섰다.

“오늘은 지난번 말씀 드린 대로 학생들과 함께 논어 읽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책 읽기 동아리 학생들도 평소에 논어 읽기를 진행해왔다고 해요. 기존 어른 회원들이 먼저 책을 낭독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학생들의 눈빛. 마치 책방에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차는 기분이 들었다.

*자왈 불환인지 불기지 환부 지인야*

*子曰 不患人之不己知 患己不能也*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파 죽을 듯이 하지말라.*

*다른 사람을 진정 알아보지 못함을 진정 아파해라*

낭독이 끝나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다. ‘공감이 가는 문장 같아요. 살면서 이런 순간이 많거든요. 왜 남들은 나의 진가를 알아주지 못하지? 하고 원망스러울 때요.’ 하고 운을 뗐다. 태남 씨는 서로의 눈빛이 오가는 순간을 조용히 지켜봤다. 목소리도, 성별도, 나이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아주 오래된 경전을 사이에 두고 만나는 일은 일상에서 흔하지 않았다. 태남 씨는 이 아름다운 만남을 기록해두고 싶어 휴대폰 카메라로 찰칵, 사진을 찍었다.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라는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이었다.



박 태 남

인문책방 '생의한가운데'를 운영하고 있다.  
행복교육지구 지역중심 마을 학교에 참여하며  
꾸준히 에세이 쓰기, 작가와의 만남을 만들고 있다.

---

## 손 은 속

### # 당신의 이름

“중도입국청소년과 함께하는 <한국어 골든벨>을 시작합니다.”

은속 씨가 마이크를 들고 ‘한국어 골든벨’ 행사 시작을 알렸다. 와아- 하는 함성과 박수 소리가 강당에 울렸다. 의자에 앉은 청소년들은 저마다 스케치북을 들고 앉아있었다. 작년에는 스케치북 대신 칠판을 사용했었지만 올해는 달랐다. 행사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칠판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보드펜으로 글씨를 썼더니, 옷에 닳여서 잘 지워졌어요..”

“쓰고 지우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 작은 불편, 사소한 이야기일지라도 귀 기울여 듣는 것. 청소년,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을 만날 때 은숙 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은숙 씨는 물끄러미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바라보았다. 제일 앞줄에 앉은 미주는 스케치북에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놓았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윤호는 만화 캐릭터를 그려놓았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하게 빛났다. 새로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집중하는 눈빛을 보면서 행사를 준비한 보람이 느껴졌다.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을 위해 상금을 준비했지만, 마음 같아선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다.

그때 스케치북을 들고 앉아 있는 미주가 눈에 들어왔다. 첫 상담 때, 가만히 눈을 감고 있던 미주. 마지못해 짧게 대답했던 미주. 하지만 은숙 씨는 미주가 꾸준히 센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잠깐 생각에 잠긴 은숙 씨를 깨우는 다음 질문이 들렸다.

“깜짝 질문입니다!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 대표님 성함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손은숙, 자신의 이름이었다. 쑥스러움이 밀려왔지만. 은숙 씨는 금방 써 내려간 아이들의 답변에 가슴이 먹먹할만큼 감동했다..

[손은숙 대표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 손은숙]

그리고 눈이 멈춘 곳에 미주의 답이 있었다.

[대표님. 마음이 너무 큰, 부모처럼 된 사람이다]

서툰 글에 담긴 진심. ‘부모 같은 사람’ 은숙 씨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었다. 이번 퀴즈의 답을 맞힌 사람은 모두 동그라미, 전원 합격이었다.





손은숙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 이사장.  
중도입국청소년의 무한 지지자가 되고 싶은 사람.



---

## 송 미 선

### # 김해를 담은 시

미선 씨는 이른 아침부터 김해국립박물관을 찾았다. 평일 오전의 박물관은 한적했다. 적막한 전시관을 느리게 걸었다. 몇 번, 몇십번은 봤던 가야의 유물이었지만 시로 쓰겠다 생각하고 다시 보면 새로움이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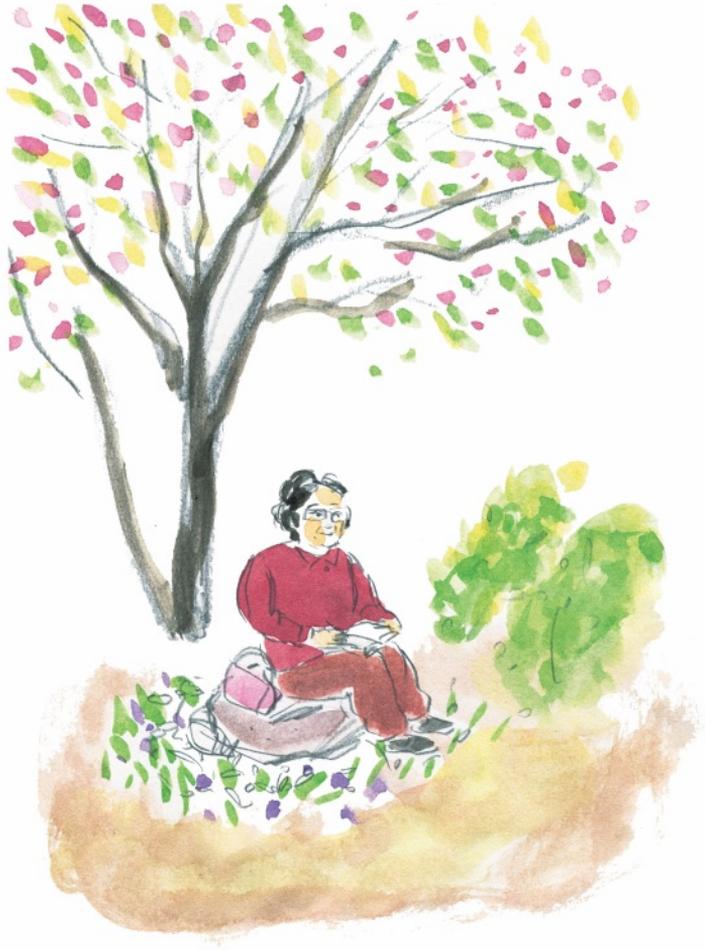
우두커니 서서 가야인의 생활을 상상했다. 옛 가야인들은 돌날을 들고 딱딱한 열매를 얼마나 강하게 두드렸을까? 돌칼은 어디에 두고 잠이 들었을까. 상상이 천천히 번져 나갔다. 미선 씨는 유물마다 담긴 유구한 사연에 대해서 상상했다. 그럴 때면 마치 두꺼운 유리 안에 들어 있는 유물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분명히 자신이 살아보지 못한 시간이었지만, 박물관에 오면 묵직한 실감이 느껴졌다.

미선 씨는 김해의 역사를, 아름다운 은하사와 모운암을. 발품 팔아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시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 나중에 시집으로 엮어내 세상에 내보내고 싶다고 꿈꿨다.

박물관을 천천히 둘러본 미선 씨는 다음 장소로 향했다. 머릿속에 뛰노는 영감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혼자만의 시간, 사색을 원할 때 찾는 비밀 같은 장소가 있었다. 박물관 뒷길은 미선 씨가 특히 좋아하는 곳이었다. 포슬포슬한 흙길은 구지봉과 이어져 있었다. 산벚나무와 이름 모를 풀과 들꽃이 눈에 들어왔다.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었다. 미선 씨는 발아래 제비꽃을 밟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산벚나무 아래에 앉아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연필이 바쁘게 움직였다.

*[돌날과 돌칼에 남아있을 가야인의 지문  
곡식 담아두던 손길을 그려보는 빗살무늬토기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는 굽다리접시  
앞날을 기원하던 복골卜骨은  
조개더미 속에서 가야의 꿈을 기원한다  
팽팽히 겨는 활을 떠나는 간돌화살촉으로  
용맹을 펼친 가야의 용사들이여]*

\* 송미선 시인 / <가야의 여명> 중



---

송 미 선

시인. 김해문인협회 회원. 가야여성문학회 회장.  
시집 <다정하지 않은 하루>, <그림자를 함께 사용했다>를 냈다.

---

## 유 행 두

### # 최선의 태도

행두 씨는 의자에서 일어나 양팔을 하늘 위로 쭉 뻗었다. 빠근한 어깨를 손으로 주물렀다가 허리를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비틀었다. 자기도 모르게 으쓱, 하는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동화 작업을 하다 보면 늘 이랬다. 틈틈이 스트레칭 하는 것도 까먹고 집중하는 일이 허다했다.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한다.’

행두 씨가 생각하는 작가의 자세였다. 다른 건 몰라도 글만은 대충할 수 없었다. 기미가 짙어지도록 열심히 하는 것을 최선의 태도로 삼았다. 덕분에 오전 내내 노트북 앞에 앉아 글과 씨름했다.

‘김해의 역사’, ‘김해 인물 이야기’ 등 김해의 역사를 다룬 역사서부터 작법서까지. 책장에는 빼곡하게 책이 꽂혀 있었다. 그리고 책상에는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습작한 내용이 담긴 노트와 종이 뭉치가 쌓여 있었다. 타인이 보면 어지러운 풍경이지만 행두 씨에게는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행두 씨는 책장에서 <가야사 이야기>라는 책을 꺼내 페이지를 넘겼다.

행두 씨는 예전부터 가야사에 관심이 많았다. 아이들 대상으로 역사 교육도 했고, 김해의 유물과 유적지를 배경으로 여러 작가와 책을 내기도 했다. 이번에는 ‘구지가’를 주제로 한 동화를 쓰고 있었다. 행두 씨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이번에는 어떤 주인공을 등장시킬까, 어떤 사건을 겪으며, 어떻게 끝을 맺을까. 자유롭게 상상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났다.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았다. 힘이 들고 지치더라도 미래의 독자를 상상하면 불끈 힘이 났다. 잠자기 전 이불을 덮고 동화책을 읽는 어린이, 교실에 앉아 자신의 책을 읽는 어린이. 그리고 어린이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재밌다!”는 말. 행두 씨는 얼른 그 말을 듣고 싶었다. 어느새 행두 씨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달려나갔다.



## 유 행 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동화를 쓰는 아동문학가.

‘떡할머니 묵할머니’, ‘할머니의 휴대폰’, ‘독립군이 된 류타’ 등을 썼다.





---

## 이 갑 임

### # 그리움을 그리다

봄비 내리는 밤. 갑임 씨는 우산을 든 채 가로등 켜진 동네의 야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비에 떠내려가는 벚꽃잎을 봤다가, 멀리 백열등 켜진 집을 봤다가. 젖어 들어가는 운동화 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엇이 생각이 난 듯, 작업실로 황급히 걸음을 옮겼다.

달칫, 조명을 켜자 환해진 작업실이 한눈에 들어왔다. 작업실에 들어설 때면 꼭 고향에 온 것 같다는 착각이 들었다. 돌고 돌아 언젠가는 꼭 닿아야 할 장소처럼 느껴지는 공간. 갑임 씨는 오랜 시간 함께한 짝꿍처럼 익숙한 앞치마를 입고 캔버스 앞에 앉았다. 갑임 씨의 마음에 들어온 풍경을 캔버스에 담기 위해서다. 붓을 쥐고 갑임 씨는 금방 스케치에 몰입했다. 캔버스에 선을 긋는 동안, 색을 칠하는 동안만큼은

자유를 느꼈다. 몸은 작업실에 있지만, 정신만은 우주 속을 자유로이 유영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갑임 씨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캔버스에도 본격적으로 색이 입혀졌다. 까만 밤하늘에 흩날리는 비를 그려 넣으면서 두 사람을 떠올렸다. 생각만 해도 코끝이 시큰거리는 얼굴. 어린 시절부터 갑임 씨는 그림을 잘 그리기로 학교에서 유명했다. 그림을 그려 상이라도 탄 날에는 얼마나 신이 나서 집으로 갔는지 모른다. 그럴 때면 부모님은,

“아이고 우리 임이 최고다!”

“임아, 아버지가 그림 시켜줄게.”

자랑스러움이 어린 얼굴로 갑임 씨를 쳐다보았다. 그땐 몰랐다. 농부였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에 ‘자식에게 그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이었을지.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부모님께 말하고 싶었다. 정말 감사하다고. 덕분에 화가가 되었다고.

캔버스에 까만 하늘을 칠하다 말고, 갑임 씨는 축축해진 눈가를 닦아냈다. 붓끝에 그리움이 잔뜩 묻어나는 것만 같았다.



---

이 갑 임

갤러리 '나무' 대표.

주로 야경, 오래된 골목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다.

---

## 이 기 원

### # 초록빛 위로

이상하게 기분이 들뜨는 연말. 12월에 접어들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캐럴을 따라 흥얼거리며 기원 씨는 자동차 시동을 켰다. 김해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테라리움 특강이 있는 날이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긴장도 났지만 설렘이 더 컸다.

도착한 강의실 안에는 긴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다. 기원 씨는 <내 손안의 작은 정원 꾸미기>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찰칵, 핸드폰 카메라에 담았다. 그리고 전날부터 준비한 1인용 테라리움 키트를 책상마다 하나씩 올려 두었다.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 인사를 건넸다.

“혹시 <테라리엄>이란 말 들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몇 명의 사람이 손을 들었다. ‘유리병에 이끼 키우는 거 아닌가요?’, ‘어항 안에 식물 장식하는 것?’ 기원 씨는 모두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알고 계신 것이 맞다고 말하며 부연 설명을 했다.

“우리가 길을 지나다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끼죠? 테라리엄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항이나 유리 용기 같은 밀폐된 공간에 식물이나 이끼가 살아갈 수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개개인의 성격이나 센스를 통해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테라리엄의 매력이에요.”

1인용 키트에는 테라리엄 만드는 법이 순서대로 표시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마치 모래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처럼 흥미로운 표정으로 흙을 만지고 이끼를 떼서 관찰했다. 때로 흙을 얼마나 담으면 될지, 돌은 어디에다 두면 좋을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었다. 기원 씨는 힌트를 주듯 말했다. 자신이 경험한 자연을 떠올려보라고. 등산했을 때 만난 이름 모를 식물, 바위 사이에 낀 이끼. 길을 걷다 발견한 나무. 모든 게 테라리움의 소

재가 된다고.

종일 사무실에서 컴퓨터 자판과 마우스, 전화기를 만졌던 손들이 자유롭게 흠을 퍼담고, 차가운 유리병을 쓰다듬었다. 자연스럽게 사무실에서라면 하지 못한 편안한 사담이 오갔다. 기원 씨는 처음보다 표정이 풀어진 사람들 사이를 걸었다. 마치 아기 다루듯 식물을 대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평화로워 보였다. 눈이란 사진기로 담아서 간직하고 싶은 모습이었다.



이 기 원

〈부부 가드닝〉의 대표.

테라리움을 제작하며 강의와 강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 이 한 준

# 첫 한 걸음.

햇살 좋은 오후, 카페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리빙랩 프로젝트- 삼방동 팀>의 첫 번째 만남이었다. 한준 씨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사람들을 기다렸다.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인 것은 우원 씨였다. 삼방동에서 산 지 40년이 되었다는 우원 씨는 호쾌하며 웃으며 자기 소개를 했다.

곧 여섯 명의 사람이 카페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아는 얼굴도 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다. 자기 소개만큼 어색한 시간은 없었지만 ‘삼방동 주민’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친근감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부터 소개할게요. 문화도시센터 도시문화실험식 프로젝트 매니저 이한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가워요”

한준 씨의 소개를 시작으로 돌아가며 자기소개가 이어졌다. 오랫동안 살아온 삼방동이 좋아서, 최근에 이사 온 삼방동이 궁금해서, 다양한 계기로 삼방동 프로젝트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삼방동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기로 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어두움’이었다.

“그러게요. 왜 삼방동을 떠올리면 어둡다는 생각이 들까요?”

테이블 중간에 앉은 호연 씨가 되물었다. ‘가로등이 적어서 일까요?’ 미옥 씨가 말했고, 도경 씨는 ‘그렇기보다, 시민들에게 삼방동만의 고유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말했다. 토론이 폭 익어가고 있었다.

“우리 다음 모임 때는 우리 삼방동의 단점을 장점으로 치환해서 생각해오는 거 어때요? 예를 들어 교통이 복잡하다는 단점은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삼방동은 창원과 부산을 모두 오갈 수 있는 동네라는 장점이 있다!”

민수 씨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동네의 단점을 장점으로 생각해보기’란 문혀있던 동네의 매력을 알아가는 좋은 방법이였다. 사는 지역을 섬세하고 다정하게 바라보고, 정의하는 일은 도시 문화 실험의 첫걸음이었으니까. 한준 씨는 이 멋진 프로젝트의 시작을 함께 하고 있음이 자랑스러웠다.



---

이 한 준

〈우리동네사람들〉 사무처장.

문화도시센터 도시문화실험실 PM(프로젝트 매니저)으로 활동하고 있다.

생활민주주의가 김해에 자리 잡기를 바라는 사람.



---

## 인 두 닐

### # 당신을 위한 작은 불빛

경남의 이태원이라고 불리는 김해 로테오 거리. 베트남 요리 전문점, 아시안 생필품 마트... 많은 가게 사이에 인두닐 씨와 송윤희 씨가 운영하는 'E9pay'가 있었다. 낮에는 부산하게 오갔던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어느새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인두닐 씨는 몇 시간째 통화 중이었다. 하루에도 몇 십번씩 울리는 전화였다. 인두닐 씨는 아예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은 채로 통화를 이어 갔다. 얼마 전 스리랑카로 돌아간 다누크 씨였다.

”몸은 좀 어때요?“

덕분이에요. 편안해졌어요. 다누크 씨는 익숙한 스리랑카어로 대답했다. 인두닐 씨는 다누크 씨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다.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시간. 그때 인두닐 씨는 묵묵하게 다누크 씨의 곁을 지켰다.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들이 가장 곤혹스러울 때는 몸이 아플 때였다. 한국인 의사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 힘들었기 때문에 병명과 치료방법을 들어도 속수무책이었다. 다누크 씨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다누크 씨의 병명은 위암.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의사로부터 그 말을 들은 인두닐 씨는 다누크 씨에게 아무래도 가족이 있는 스리랑카로 다시 가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했다.

전보다 편해진 다누크 씨의 목소리에 인두닐 씨는 마음이 놓였다. 전화를 끊기 무섭게 또 전화벨이 울렸다. 아침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울리는 전화였지만 귀찮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도리어 힘들고 외로울 때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웠다.

”인두닐 형은 나의 아버지 같아요.“

코로나19 사태로 몇 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해 외롭다고 토로했던 동생은 그렇게 말하며 조금 울었다. 걱정하지 마, 열심히 해보자. 좋아질 거야.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동생은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주는 것이 마냥 고마웠다.

자정을 넘긴 밤거리는 깜깜했지만 다정한 불빛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길을 지나는 이름 모를 사람을 위해서 불을 켜둔 'E9pay'였다.



---

인 두 닐, 송 윤 희

소액해외송금업체 'E9pay' 대표.  
한국과 스리랑카를 잇는 민간외교관.



---

## 임 철 진

# <회현당>의 바리스타를 기억하며

책상에 앉아 문서정리를 하던 철진 씨는 드르륵, 진동 소리에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휴대폰 액정에 김소희. 세 글자가 떠 있었다. 검지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전화통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돌아가신 박소임 할머니의 딸, 소희 씨였다. 철진 씨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고 창문 너머 가로수길을 바라봤다. 플라타너스 나무의 잎이 바람에 하나 둘 떨어지고 있었다.

“엄마 산소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생각나서 전화드렸어요.”

박소임 할머니는 사회적 협동조합인 <회현당>의 1호 바리스타였다. <회현당>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는 모두 마을에서 폐지를 줍던 어르신들이었다. 종일 폐지를 주어 한 달에 4-5만 원을 벌던 어르신들은 <회현당>에서 일하며 40만 원의 월급을 벌었다.

박소임 할머니가 첫 월급을 받던 날을 기억한다.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말하는 철진 씨의 손에 결국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쥐여 주었던 할머니. 아직도 할머니가 자신을 다정하게 부르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만 같았다.

“오늘따라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잘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가끔 엄마랑 통화하면 그랬어요. 아침에 화장하고 출근할 수 있는 회현당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새벽부터 리어카 끌며 종이줍는 일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재밌다고,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네요.”

철진 씨는 말했다. 자신이 기억하는 박소임 할머니는 싱거운 농담을 잘하고, 자주 웃던 사람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모른다고.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한 사람의 눈물이 잦아들기를 바라며.



---

임 철 진

생명나눔재단 사무총장.

건강한 공동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김해를 꿈꾼다.

---

## 전 병 진

### # 나의 손으로

대장간으로 들어선 병진 씨는 어젯밤 작업이 끝나고 벗어둔 토시와 장갑을 꼈다. 매일 만나는 친구 같은 장갑과 토시였다. 1000도가 넘는 쇠를 만지는 대장장이의 일은 자칫하면 위험한 사고로 이어졌다. 언제나 안전이 우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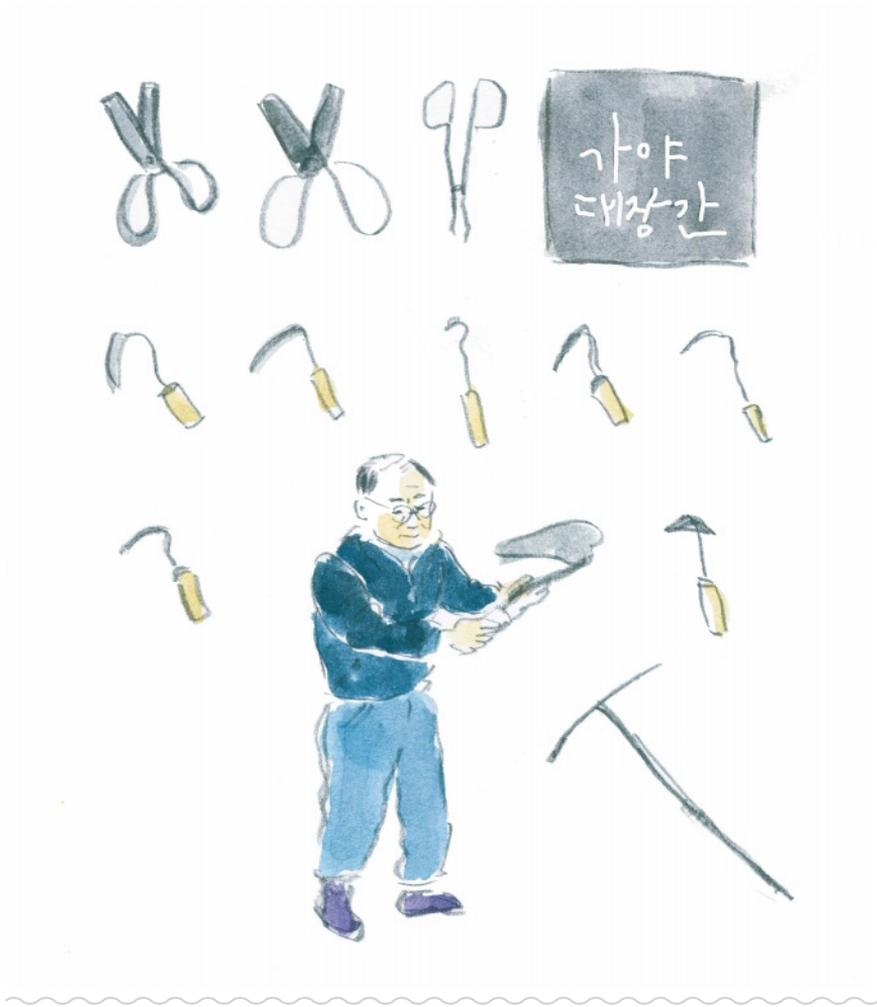
오늘은 까다로운 작업을 하는 날이었다. 평소 만들어냈던 일반적인 크기의 호미가 아닌 세 배 정도 큰 대형 호미를 제작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병진 씨는 이왕이면 대장간을 찾는 손님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싶었다. 공장에서 쏟아지는 똑같은 모양의 호미가 아닌 오로지 사람의 힘과 기술로 빚어낸 연장의 매력을 알리고 싶었다. 언젠가는 선조들이 사용했던 대장간 모습을 재현한 전시장을 만들고 싶다는 꿈.

“병진 씨, 차 한 잔 마시고 하세요.”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병진 씨는 ‘다 만들고 나서 마실게요’ 하고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전기로를 열어 뜨겁게 달궜진 쇠를 꺼냈다. 겉으로 보기에 별 쓸개 잘 익어 보였지만 전체가 다 잘 달궜는지는 겉보기에 잘 가늠할 수 없었다. 병진 씨는 망치를 들고 쇠를 두드려보았다.

땅땅땅- 단단한 소리가 대장간에 퍼져나갔다. 빨간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예상한 대로 한 번에 모양이 잡히지 않았다. 다시 쇠를 전기로에 넣고 달궜다. 망치질을 할수록 원하는 호미의 모습에 가까워졌다. 몸속 깊숙한 곳에서 희열이 올라왔다.

반나절 동안 공들인 대형 호미는 저녁 무렵에 완성되었다. 병진 씨는 손잡이에 ‘가야’ 두 글자를 새긴 호미를 앞에 두고 작업실 의자에 털썩 앉았다. 처음 머릿속에 상상한 모습보다 더 잘 나온 듯했다. 원하는 물건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희열이야말로 대장장이의 기쁨이자 자랑이었다.



전 병 진

〈가야대장간〉 대표.

40년 경력의 대장장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칼, 호미, 낫 등을 생산한다.





---

## 정 인 한

### # 모두가 잠든 밤에

집 안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암막 커튼이 도시의 빛을 막은 까만 밤. 적당히 늘어나 편안한 잠옷을 입은 인한 씨는 두 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이들은 하품을 하면서도, 쉽게 잠들지 않았다. 아이들은 돌아가며 하루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밤의 대화는 어째서 더 솔직해지는 걸까.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딸은 새로운 일을 많이 겪고 있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1학년 담임 선생님과 만났고, 걱정보다 쉽게 새 친구들도 사귀었고 했다. 서우, 은솔이, 정우. 친구들의 이름을 말하는 딸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 있었다. 아직은 어색한 이름들을 인한 씨도 속으로 한 번씩 더 발음해보았다. 이야기는 한참 계속되

었다. 어느샌가 아이들의 목소리가 느려지고, 꿈벅 꿈벅 눈을 감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때,

“사랑해, 아빠. 잘자.”

“내가 더 사랑해. 아빠”

두 딸의 사랑 고백이 이어졌다. 나도 많이 많이 사랑해. 인한 씨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누가 더 사랑하는 지 대결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서로 사랑한다고 아웅다웅했다. 인한 씨는 가끔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고백에 매달려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매일 아침 일곱 시에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는 지난한 하루의 반복 끝에 기다리고 있는 선물 같은 시간.

차분해진 아이들의 숨소리가 들렸다. 인한 씨의 눈꺼풀도 무겁게 내려 앉았다. 이대로라면 아이들과 함께 잠이 들지도 몰랐다. 곤하게 잠든 아이들의 이불을 정리해 준 다음, 큰 결심을 한 것처럼 몸을 일으켰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가 거실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휴대폰에 메모해둔 글감을 한번 훑어본 다음 심호흡을 크게 한번 했다. 이제부터 천천히 혼자가 되는 시간이었다. 인한 씨는 언제나 삶과 일치한 글을 꿈꿨다. 타닥타닥, 한 문장씩 천천히 쓰기 시작했다.



---

정인한

〈좋아서 하는 카페〉 대표.

에세이 〈너를 만나서 알게 된 것들〉을 썼다.

---

## 주 세 롬

### # ‘보자기’라는 예술

경주 황리단길에서 열린 전시는 성황리였다. 보자기 가방을 만드는 체험 코너에서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줄지어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들고 지나가던 연인들도, 산책 나온 할머니도 멈춰서 보자기 작품 구경을 했다. <도보-보자기와 걸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전시였다.

“아빠, 이게 뭐야?”

“글쎄. 보자기 같은데?”

손을 잡고 길거리를 지나던 부녀의 대화를 들은 세롬 씨는 다정하게 말을 덧붙였다.

“보자기 아트라고 해요. 물건을 감쌀 때 쓰는 천으로 다양한 작품을 만든 거죠.”

세롬 씨의 설명을 듣고 아이는 아빠의 손을 끌고 작품 앞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다. 우와, 하고 작은 탄성을 내지르는 아이를 보면서 세롬 씨는 어서 김해에서도 전시를 열고 싶다고 생각했다. 전국을 돌며 한국보자기 아트 협회 회원들과 보자기 전시를 기획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김해에서는 아직이라는 점이 아쉬웠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봄에 전시했을테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던 시점이라 가을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온 김해에서 열릴 첫 전시를 생각하면 마음이 천천히 부풀었다.

보자기아트를 알게 되고 세롬 씨의 인생은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 좋아하는 일을 하니 길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과거의 세롬 씨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서슴없이 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보자기 아트의 매력을 알려주고자 먼저 연락하고 전시를 기획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보자기 아트전시 중이에요! 가까이 오셔서 편하게 보세요.”

세롬 씨는 멀찌감치 떨어져 보자기 작품을 보고 있던 할머니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손을 흔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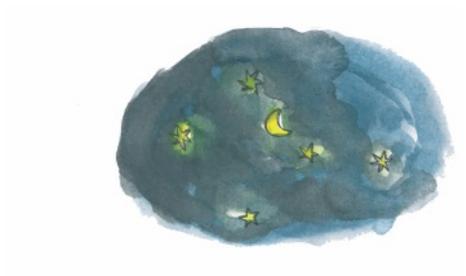


## 주 세 롬

한국보자기 아트협회 운영진 대표이자

채울공예평생직업교육학원원장.

전통문화인 보자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만들고 있다.



---

## 최 성 임

### # 특별한 선물

“수지야, 안녕! 정우야, 티셔츠 잘 어울린다.”

저녁을 먹고 돌아온 성임 씨는 하교한 아이들과 인사 나누기 바빴다. 어떤 아이는 손을 흔들며 반가워했고, 어떤 아이는 고개를 까닥하고 지나치기도 했다. 복도를 돌아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할 때였다. 벨 소리가 울렸다. 휴대폰 액정에는 ‘밴드동아리 이민강’이라는 글자가 떴다. 민강은 <김해 청 소년 문화의 집> 밴드 동아리에서 전자기타를 쳤던 친구였다.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기타 줄을 튕기던 민강의 모습을 떠올렸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민강은 대학에 가기 전까지 주말마다 <문화의 집>을 찾았다. 때로 선생님들과 음료수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던 민강은 그런 말을 했었다. 문화의 집과 청소년은 악어와 악어새 같다고. 서로 없으면 안되는 그런 공생관계라고. 그 말을 들은 성임 씨는 표현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손뼉을 치며 호들갑을 떨었었다.

“민강아. 너어어어무 오랜만이다!”

민강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년 만의 통화였다. 성임 씨와 민강은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았다. 민강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제대했으며 이제 보드게임 회사에 입사했다고 했다. 성임 씨도 지지않고 말했다. 자신도 청소년 지도사에서 운영국장이 되었다고. “우리 모두 좀 컸네요?” 민강의 농담에 성임 씨가 깔깔 웃었다.

민강은 차분하게 전화를 건 이유를 말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해마다 보드게임 기부 행사를 한다고, 이번에는 김해지역 청소년들에게 기부를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는데, 잘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진짜 재밌는 보드게임을 청소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너무 좋지! 아이들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은데?”

성임 씨는 마음이 벅차올랐다. 오랜만에 걸쳐 온 민강의 전화도, 전화로 전해온 기부 소식도 모두 특별한 선물이었다.





최성임

김해청소년문화의집 운영국장.

청소년들이 힘들 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 2021문화인물 19인

**강길수** ————— 07

만화가

**금동건** ————— 10

25년차 환경미화원, 시인

**김우락** ————— 15

김해문화원 부원장, 인제대학교 융복합센터 연구원

**김경희** ————— 18

수필가

**김은숙** ————— 22

김해문화네트워크 이사, 김해 오카리나 연구회 대표.

**박시영** ————— 26

우리소리예술단 대표

**박태남** ————— 30

인문책방 '생의한가운데' 운영

**손은숙** ————— 34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 이사장

**송미선** ————— 39

시인, 김해문인협회 회원, 가야여성문학회 회장

**유행두** ————— 42

아동문학가





<b>이갑임</b> _____	47
화가, 갤러리 '나무' 대표	
<b>이기원</b> _____	50
〈부부 가드닝〉 대표	
<b>이한준</b> _____	54
〈우리동네 사람들〉 사무처장	
<b>인두닐</b> _____	58
소액해외송금업체 'E9pay' 운영	
<b>임철진</b> _____	63
생명나눔재단 사무총장	
<b>전병진</b> _____	66
〈가야대장간〉 대표	
<b>정인한</b> _____	71
〈좋아서 하는 카페〉 대표	
<b>주세롬</b> _____	74
채울 보자기 대표	
<b>최성임</b> _____	78
김해청소년문화의집 운영국장	



김해를 가꾸는 문화인물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너를 상상하며**

발 행 일 2022년 5월  
발 행 인 김해문화재단대표 손경년  
발 행 처 (재)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060 김해문화의전당M층  
Tel 055-339-2042 | Web 문화도시김해.kr

기 획 김해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  
진 행 김지영, 채원지, 홍영우  
그 림 장두루 | 글 김수미  
제 작 공발  
편 집 노순천  
인 쇄 지성정판  
제 본 문일제책

이 책은 문화도시사업 [김해문화인물 ㄱ-ㅎ] 김예린님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글과 그림을 구성하였습니다.



